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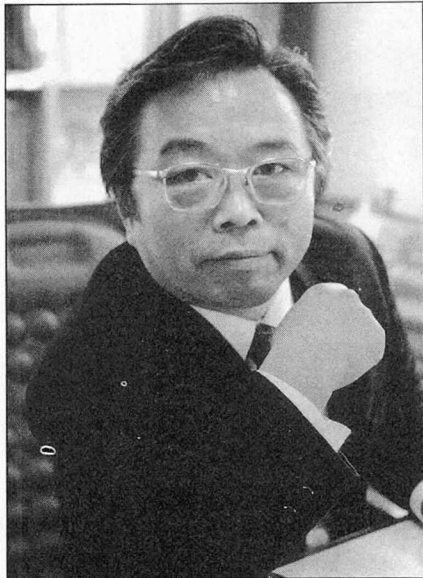
# 巫俗에서 찾는 '우리 理論'

「한국인의 교육철학」

金仁會

연세대 교수 · 교육철학

무속문화 속에  
무궁무진하게 들어있는  
재미있는 신화들과  
옛날이야기들을 말하듯이  
한국인의 교육철학을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한다는 사람들의 체면이 자주 깎이는 나라이 또 있을까 의심스럽다. 일선교사나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교육하고는 직접 상관해 본 일도 없는 일반 관료들까지도 교육문제만 나오면 교육전문가를 쫓겨 놓고 일가견을 펴기에 정신이 나간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처럼 교육전문가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학교교육의 내용 또한 우습게 아는 것 같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진학시험이나 취직시험 때 써먹기 위해서나 필요할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배운 것을 얼마나 잘 무시하고 뛰어넘어 갈 수 있는가 하는 또다른 능력과 자질이 필요하다고 믿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뒷하러 학교교육을 받지 못해 안달들을 하는가, 입시경쟁은 왜 생겼나 싶기도 하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인생살이에 써먹을만한 무엇이 학교교육의 내용 속에 있으리라 생각해서가 아니라 학교를 마친 다음 얻는 졸업자격증이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터에 고지식한 우리나라 교육학자님들은 그래도 부지런히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고, 학교교육방법이니 교육적 효과니 하는 문제들을 연구해서 논문과 책으로 내놓는다. 나는 이런 연구를 하는 교육학의 이론과 방법들이 우리나라의 교육풍토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인심이라고 하는 터밭에서 자라나온 것이 아님을 답답하게 여겨왔다.

거의 대부분의 교육학 이론과 방법들은 우리네와는 역사도 문화도 인심도 판이하게 다른 고장 사람들이 저네들의 교육을 연구하기 위해서 개발해낸 것들이다. 좀 빛한 표현이지만 물고기의 병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소나 돼지를 진단할 수 없고, 소·돼지를 진단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진단할 수 없듯이, 교육현상을 이해하고 진단하는 방법 역시 제 고장에서 기본적인 골격이 만들어져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우리의 교육과 인심이라는 터밭에 적합한 이론의 종자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일텐데, 나는 그 종자를 우리의 巫俗문화 속에서 뒤져보고자 작정했다. 그래서 무속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는 일이다 꽤나 많은 헛수를 신발품을 팔며 돌아다녔다. 스무해 가까이 되면서부터야 겨우 우리 터밭의 성질이 어떻구나 하는 짐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꽤나 아둔한 머리라는 소릴 들어도 싸지만, 여하간 우리의 터밭에다 교육이라는 농사를 지으려면 흙은 언제 뒤집어야 하고, 씨앗은 어떤 것을 뿌려야 하며, 김은 언제 매어야 하는지, 비료는 무엇이 좋은지 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껄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점점 굳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무속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설명에 주력하느라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곧 무속의 교육적 의미나 교육과 관계된 우리들의 인심이 품고 있는 무속문화적 성질에 대한 분석에 몰두해야겠다는 다짐을 혼자서 한 것이다. 아마도 그리되면, 무속문화와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는 「한국인의 교육철학」의 윤곽이 그려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무속문화 속에 무궁무진하게 들어 있는 재미있는 신화들과 옛날이야기들을 말하듯이 한국인의 교육철학을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껏 몇 년째 구상만 하고 있으니 과연 언제부터 쓰기 시작할지는 아직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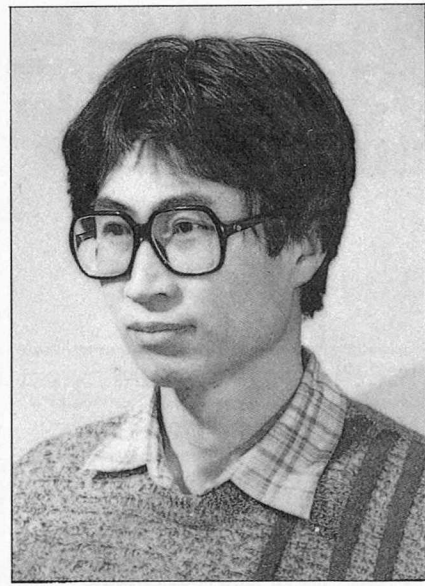
# 前線에서 겪은 분단상황

장편 「高地平話」

복거일

소설가

산문이라고 써 놓은 글을 보면,  
시인이 쓴 산문임이  
먼저 눈에 띄었다.  
그래서 뒤늦게 산문수업을  
시작했고, 그 수업에서 습작  
두 편이 나왔다.



자신의 작품에 대해, 그것도 채 마무리되지 않은 작품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쑥스러운 일이다. 편집자의 부탁에 응하기는 했지만, 역시 얘기가 선풍 나오지 않는다.

네 해 전 봄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방에 들어앉아, 소설 한 편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원래 시인이 되려 했었고, 쪽 시를 써 왔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쓰는 종류의 서정시로는 그때의 우리 현실을 담기가 점점 어려워짐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암울한 현실을 담는 데 성공한 시들이 눈에 띄는 것도 아니었다. 여러 사람들이 '시의 시대'라고 했지만, 내게는 목청이 높은 구호들만이 들려 왔다. 구호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필요한 세상이었지만, 내가 찾은 것은 시였다. 그래서 어떤 뜻에선 소설은 내가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 나오는 길이었다.

작품의 소재와 그것을 담을 형식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막상 쓰려 하니, 첫머리부터 뜻밖의 문제에 부딪혔다. 스무해 넘게 쌓은 시인으로서의 수업이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 산문이라고 써 놓은 글을 보면, 시인이 쓴 산문임이 먼저 눈에 띄었다. 그래서 뒤늦게 산문 수업을 시작했고, 그 수업에서 습작 두 편이 나왔다. 나중의 것이 지금 개간 「외국문학」에 분재되고 있는 「高地平話」다.

마침 지금은 없어진 월간지에서 장편소설을 공모했다. 응모하면서 꽤나 기대를 걸었었는데, 낙선이었다. 당선작이 없었으니 할말이 아주 없지는 않았는데, 심사평이 나왔다. 아주 나빴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소설의 기본 형식을 무시한 데다가 의식이 마비된 주인공을 내세웠다는

얘기였다. 다행히 예선 심사평은 괜찮았다. '서정성이 깃든 평명한 문장'이란 평은 '시인이 쓴 산문'이란 평을 두려워한 내겐 무척 반가웠다. 다음날 나는 뒤에 「碑銘을 찾아서 : 京城, 소우와 62년」이 된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

「高地平話」는 포병 중위인 주인공이 중부 전선 비무장지대안의 감시초소에서 보낸 1960년대 후반 두 해 동안의 이야기다. 따라서, 주제로 따진다면 소위 '분단소설'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 우리 민족이 둘로 나뉜 상황을 주제로 볼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겐 군대 생활이 가장 큰 통과의례인 점을 생각하면, '성장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 주인공의 편력시대를 주제로 볼 수도 있다. 나는 작품에 그런 분류 명칭을 붙이는 것에 대해 좀 회의적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작품인 점은 마음에 든다. 나는 작품이 다면제이길 바란다. 삶처럼.

지금까지 써 놓은 글을 몇 번 읽어 보아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대단한 글을 바랄 계제가 아니어서 기대를 건 것은 아닌데도. 새뮤얼 딜레이니의 얘기를 변명으로 삼는다. '나는 자기 작품의 창작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하면서, 적어도 그렇게 논의하는 동안은, 좀 왜소해진 인물로 보이지 않는 작가를, 그가 만나나 보르헤스든, 예이츠나 발레리든, 읽은 적이 없다.'